



설 가정예배 순서



개 식 사 **담 당 자**
설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다 같이**

찬 송 **570장** **다 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 도 **담 당 자**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설 명절을 맞아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을 점검하며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화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크신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욥기 5:8-9** **담 당 자**

8.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9.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말 씬 **사랑 없는 옳은 말을 조심합시다** **담 당 자**

욥기 5장은,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랑없음을 나타내는지를 봅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1,2절입니다.
욥, 들어보게나. 어디 한 번 부르짖어 보게, 그 누가 대답하는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 누구에게 자네는
자네의 얼굴을 돌리려는가? 어리석은 자는 투덜거리다가 망하고
철없는 자는 화를 내다가 죽는다네.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앞세웠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눈을 뜨고 욥을 보고 있으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자신이 내뱉는 정답만 옳은 거라고 여겼습니다.

엘리바스는 괴로워하는 욥을 보면서 미련하다고 혀를 차면서 욥이 죄악을 저지른 사람으로 단정 지었습니다. 엘리바스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권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판단하며 정죄하는 가혹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판단을 내린 후에,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는, 자신은 선하고 정당하지만 욥은 틀렸고 불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이런식입니다. “야 나라면! 너처럼은 안 한다! 너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에 차라리 더 기도하겠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에 틀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도우신다.

모두 맞는 말이지만, 사랑이 없으니 틀렸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엘리바스와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가족, 친지들의 고난에 함께 아파하며 충분히 위로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정답만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복된 설 명절입니다. 은혜로 2024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해는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서로에게 위로와 버팀목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힘써 사랑할 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2024 설 가정예배



찬 송 435 장 다 같이

-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 2. 세상 부귀안일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 하소서
- 3. 어둔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후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기도문 다 같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 되세요